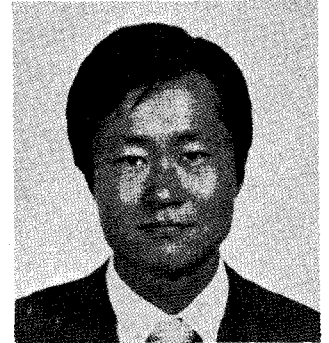


단합된 일체감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차 성 은

(농림부차장 생산부장
건국대 축산대 졸)

금년들 어 최악의 시련이 우리나라에 닥쳐왔다. 연이은 수입개방압력에 이어 10월 24일에는 미국 상무성이 엘범 수출업체에 64.8%라는 터무니 없는 덤핑과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가 중에 특히 한국이 미국내 무역역조현상의 해소책으로 인한 수입개방압력의 모델 케이스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일 수 밖에 없다.

과거 중공업에서 무역위주로 국가정책을 변환함에 따라 해외 개척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이번의 충격적인 사건은 발등에 떨어진 불로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 고려를 정부입장에서 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다.

이제 농축산물에까지 자의든 타의든, 수입개방의 바람이 불어 닥쳐질 모양인데 이에 우리는 슬기와 지혜로 온 국민이 현명하게 대처하되 개인적으로 축산물의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에서 감히 의견을 피력코자 한다.

(1) 생산자 측면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호를 충족시켜 줄만한 다양한 제품의 생산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로 우리의 전통과 입맛을 살린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생산성 효율화에 의한 생산 원가를 낮춤으로써 진근대적 생산방법을 탈피하고 소비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① 저렴한 가격, ② 영양이 풍부하고 위생적인 다양한 제품, ③ 구입이 손쉬울 것 등의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구미인에게 맞게 만들어진 상품이 들어와서도 자연히 거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먼저, 저렴한 가격은 양축가 자신의 의식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자신이 바로 제일선에서 국민의 식생활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철두철미한 직업의식의 발동 없이는 보다 나은 축산발전을 위한 투자 의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보며, 따라서 국내 양축시설 구조에 맞는 장비의 현대화와 축

●특집 / 나의 의견

산 전문기술의 진보등은 완만한 발전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밀어닥치는 수입개방압력에 소비자의 눈은 새롭고 특별나게만 보이는 외국제품에 쏠리게 될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축산인이 전반적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은 아낌이 없을 것이다. 영양이 풍부하고 위생적인 다양한 제품은 크게는 생산, 가공, 판매로 생각해야 하기때문에 어느 개인이 완제품까지를 담당하는 것 보다는 분업 형태를 취하되 상호신뢰와 신용으로서 계약을 한다면 개인의 막대한 투자비용이 없이도 얼마든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제품의개발인데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과 전통적으로 꿩이고 지저머는 우리의 식생활습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에 따라 현대인의 구미에 맞도록 간단하면서도 한끼의 식사에 부족됨이 없도록 구색을 갖춘다면 지금의 간식 또는 반찬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축산물을 식탁의 주식으로하게 하는 것도 요원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셋째로, 소비자의 구입이 손쉽게 하려면 현재의 유통과정을 살리면서 점차적으로 소비자 생활권내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독특한 판매방식이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된다. 예를 들면 슈퍼 체인(super chain)을 통해 냉동, 냉장시설을 하도록 보조하여 주부의 눈길이 쉽게 닿을 수 있게 한다든가 빠르고 간단한 식사(간식, fast food)에서도 여러종류의 음식을두어 기호에 맞게끔 자유 선택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소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것이 갖추어지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하여 각급 호텔과 일반 대중 음식점에 포장육과 같은 위생적인 국내 축산식품을 의무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본다.

(2) 소비자 측면

흔히들 소비자 입맛이 까다롭다고 한다. 그

렇다고 소비자들이 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무엇인가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수 있고 혹은 축산물생산자들의 핑계도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생산자의 의식이 확고하여 소비자를 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축산물이 수입되어 호황을 누린다면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된 느낌이 없지 않다. 선진 문화국민의 자질을 갖고 있는 우리는 설혹 단단히 잘못된 몇명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의 이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국익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신문에서 여류필자가 여행하며 쓴 글 중에 눈에 닿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미국의수입개방에 대한 압력이 다음의 두가지만 개선이 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필요에 의해서라면 무방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그중 하나는 국가 재정수입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매수입을 잃을 수 없으므로 담배의 질을 양담배 수준으로 높이고, 두번째는 소비자들인 애연가들 뿐만 아니고 비흡연가들 전체가 범국민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국산품애용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들의 개방압력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비단 담배뿐아니라 그 어떤 것이 들어오든 국민의 정신무장이 국익에 우선으로 투철하게 된다면 보다 빠른 선진제로의 도달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32주동안 미국 5개주를 축산관계의 연수로 돌며 그곳 소비자들에게서 느낀점은 소비자적 욕구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작거나 혹은 큰 금액의 해외상품들이 작은 마을의 상점에까지 진열되어 있는데, 가격에 있어 저렴하고 질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나는데 구태여 국내생산품을 쓸 하등의 이유를 소비자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국산품을 애용하십시오'라는 호소를 하기 싫은 지도자의 체면은 우방이며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무릅쓰고 개발도상국 또는 중진국을 대상으로 수입개방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국가의 경제기틀이 다져지는 이마당에 보다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합된 힘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록 수입품의 값이 싸고 질이 다소 좋다고는 하나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는 수입개방의 압력도 한낱 종이칼에 불과하고, 나아가 생산자 의욕을 북돋우어 외국 제품에 뒤지지 않는 동등한 품질 생산과 대량 판매에 의한 저렴한 가격형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업종 부문별로 보았을 때 한가지 사실은 농

축산물의 수출입 불균형은 축산기계, 축산기구, 종계, 사료용 곡물 수입 등 분명히 우리가 그네들에 의해 무역역조 현상을 갖고 있어서 큰 소릴 할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푸념도 해본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내수산업의 큰 흔들림 없이 온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앞으로 있을 두 큰 국제행사에 떳떳이 우리의 축산물이 선보여 국제시장에 광고될 수 있고 나아가서 해외로의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일체감을 보여야 할 때라고 믿는다.

